



2024

DAERYUN ALUMNI
NEWSLETTER

새별장학뉴스

(財)大倫同窓獎學會
大倫總同窓會



DAERYUN ALUMNI 2024 NEWSLETTER

『2024 셋별장학뉴스』 | 발행일 2024년 8월 28일 | 발행처 (재)대륜동창회장 / 대륜총동창회 | 주소 대구시 수성구 교학로7길 77, 상가동 2층
발행인 김성철 | 편집주간 은동열 | 편집위원 김병규, 김모현, 서민철 | 편집디자인 맥스 커뮤니케이션_053 252 8447

인사말 | 대륜동창장학재단 이사장, 대륜총동창회 회장 03

모교소식 04

3학년 심화반, 서울대와 고려대 견학 통해 입시 전략 다지다 06

교남학교 후원의 출발 07

2024년도 대륜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11

제35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13

동창회의 발전 방향과 동창장학회의 발전 방향 14

재부지역동문초청 동창회 송년의 밤 16

재경동창회 성남 남한산성 동문가족 트레킹 대회 18

대륜고 22회 50주년 기념 축제 | 반세기의 우정과 추억을 나누다 20

69회 동기회 사무실 개소식 21

반백 년의 만남, 58개띠의 수난사!! | 오철환(50회) 22

재경대륜 26기 셋별친구 만남반세기 큰잔치 | 셋별은 영원하라 25

은사님과 함께 초청 나들이 26

대륜셋별합창단 음악회 | 날마다 소풍 27

업고서라도 갈게요... | 영천시 영동중학교 교장 안명환(58회) 28

동창회 산악회 효과 31

죽을 뻔한 산모 살려낸 의료진 소방서 언급한 이유는? 32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성원준 (67회)

대륜55회 40주년 및 환갑기념 일본 단체 여행기 34

“인생은 지금부터”를 가치로 내걸고 다녀오다!

대륜56회 40주년 제주 여행기 36

“우리가 1983년 2월 졸업을 하고 40년이 지났다”

셋별인 동정 38

함께 만들어가는 동창회 39





오대양 육대주의 섯별 대륜인!!

안녕하십니까? 총동창회장 김상철입니다.

제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문 여러분과 함께하며 많은 일들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동문모임을 활성화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가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기 동창회장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동창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35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악회를 비롯한 동창회의 소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개교 103주년기념 총동창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다시한번 예년의 전통과 단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문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활기찬 동창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륜고등학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함과 동시에 이제는 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명문고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그에 걸 맞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창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우리 대륜고등학교 동창회는 그야말로 오대양 육대주의 섯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빛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모든 동창회원들의 건강과 사회에서 승승장구하여 모두에게 인정받는 대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대륜동창장학재단 이사장
대륜총동창회 회장

김 상 철



모교소식

《 2023학년도 대륜동창장학금 지급 현황》

장학회	장학금액	수혜인원	비 고
총동창회 장학금 (총동창회, 개인별, 기수별)	22,000천원	22명	1인당 1,000,000원
재경대륜장학재단	28,000천원	28명	1인당 1,000,000원
동창장학금 소계	50,000천원	50명	
그 외 외부기관 장학금	10,050천원	8명	동창회와 무관
장학금 총계	60,050천원	58명	

※ 2023년 전체 재학생(932명)에 대한 동창 장학금 수혜자는 50명으로 비율은 5.3%

※ 2023년 전체 재학생(932명)에 대한 전체 장학금 수혜자는 58명으로 비율은 6.2%

(참고: 2022년 전체 재학생(957명)에 대한 동창 장학금 수혜자는 53명으로 비율은 5.6%

2022년 재학생(957명)에 대한 전체 장학금 수혜자는 66명으로 비율은 6.9%)

《 2023학년도 장학생 배정현황》

장학금 명칭		1학년		2학년		3학년		비 고	
		반	성 명	반	성 명	반	성 명		
1	대륜동창장학재단	5	석우주	7	김우현	1	김은섭	5	성적우수
				8	김재욱	2	박경재		성적우수
2	KNT	4	이동재	8	민서준	1	박지운	3	성적우수
3	재경대륜장학재단	2	이진형	1	김남훈	1	손범수	28	성적우수
		3	오현동	1	박지훈	2	이수환		성적우수
		5	최지웅	3	김시원	3	이예준		성적우수
		7	홍민재	6	양민준	12	이형원		성적우수
		9	노유승	7	김형조	13	천승환		성적우수
		9	박준혁	7	이정우				성적우수
		10	서영훈	7	이희성				성적우수
		10	윤채혁	8	김강				성적우수
		11	손영훈	8	오윤호				성적우수
		12	문서현	9	기민준				성적우수
		1	이주호	12	김준승	12	최민성		영덕출신
4	체륜회장	1	오상윤					1	성적우수
7	이상도	10	이유성					1	성적우수
8	배인호					2	이혁준	1	성적우수
9	박명수	11	고준원					1	성적우수
10	뉴욕 동창회장			7	한승연	11	박성규	2	성적우수
11	성서셋별회장			3	박재민			1	성적우수
13	김진만	3	구한결					1	성적우수
14	총동창회장					1	배원경	1	성적우수
16	토륜회장					12	홍규민	1	성적우수
17	신영철					10	박병률	1	성적우수
18	이돈					3	강희수	1	성적우수
19	이정준					10	이동건	1	성적우수
20	비와이상사(김병규 61)					13	이창현	1	축구부주장
계		17 명		16 명		17 명		50 명	

2024학년도 대입 진학결과

서울대학교 14명

의예, 응용생물화학(2), 첨단융합(2), 공대광역, 물리천문, 전기정보공(2), 경영, 경제, 인문(2), 체육교육

의약학계열(69명)

의예 33명, 치의예 6명, 약학 19명, 한의예 6명, 수의예 5명

주요대학 합격자 현황

서울대(14), 연세대(19), 고려대(24), 성균관대(22), 서강대(11), 한양대(14), 중앙대(23), 경북대(113) 등 다수 합격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대구시교육청 주최로 6월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륜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2024학년도 이상화 선생 추모 행사 및 백일장 (5.15)



2024학년도 대륜 사제동행 체육한마당 (5.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U17) 준우승

2024년 전국의 고등학교 32개 축구팀 약 800여 명이 참가해 5월 31일부터 6월 14까지 경북 상주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U17)에서 준우승



3학년 심화반, 서울대와 고려대 견학 통해 입시 전략 다지다



지난 2월 21일, 대륜동창 장학회와 재경동창장학회의 후원으로 3학년 심화반 31명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견학하며 진로와 입시 전략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두 대학의 입학 전형과 캠퍼스를 직접 체험하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일정으로 고려대학교를 방문한 학생들은 대학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입시설명회를 들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전형 절차와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현실적인 조언과 팁을 제공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로 이동한 학생들은 규장각을 견학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규장각은 서울대학교 내에 위치한 고서와 전적들을 소장한 도서관으로, 학생들은 이곳에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입시설명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서울대 입학 사정관으로부터 학교의 교육 철학과 전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준비해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대의 다양한 학과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견학 일정 후, 재경동창회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재경동창회 관계자는 "이번 견학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남학교 후원의 출발

교우회 창립으로 촉발된 교남학교 살리기 운동은 이후에도 교우회 중심의 기금모금 활동에서 대구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모금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 박유관씨의 의연금 500원을 위시하여 각계각층의 성금이 모여 2,000여 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였으며 학교 후원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1935년 11월 2일 학교강당에서 대구 교남학교 후원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김재환씨가 의장으로 의사 진행에 들어가 회칙 통과, 역원 선정, 결의문 낭독을 완만히 마치고 폐회하였다.

다음은 창립총회의 결의문이다.

〈결의문〉

1. 본회는 대구 교남학교가 현재 존망지추(存亡之秋)에 처하여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부흥에 철저한 활동을 기함.
1. 본회는 시급한 학교 이전 신축에 관하여 후원금 10,000원 이상을 회원 중에서 거출하기로 기함.
1. 본회는 학교의 공고한 재정이 확립됨을 기하고 독지가의 출현을 촉구함.

(동아일보 1935.11.4.)



교남학교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2일 동교 강당에서

(동아일보, 1935. 11. 4.)

●○ 각계각층의 기부

교남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모교 사랑으로 시작된 교우회 조직과 의연금 모금 활동은 지역 유지와 각계 각층의 교남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강점기 시대적 저항 정신이 민족학교를 살리기 위한 민족운동의 모습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가슴 뭉클한 일대 사건이었다.



경성의 교남교에 신축기금을 회사 이근하씨로부터 천원 기증 대구 학계의 패뉴스

(조선중앙일보, 1936.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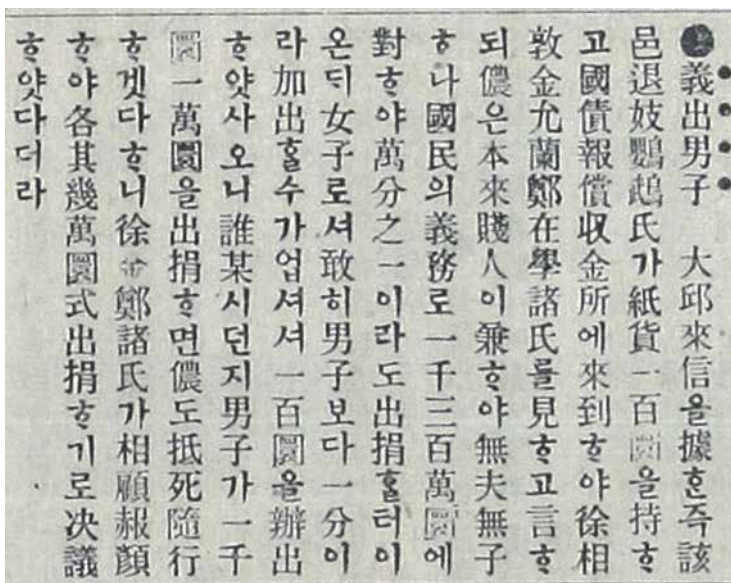


비운의 교남교에 천원씩 회사

(동아일보, 1936. 3. 6.)

동성정 2정목에 사는 이근하 씨는 교남학교에 난로 석탄을 기증하였으며 1936년 2월 12일에 자진하여 교남학교 신축기금으로 1,000원을 기부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달성군 현풍의 김찬기, 김봉기 형제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각각 일천 원을 기부하였다.

교남학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에 기생들도 동참했다. 달성권번의 기생유도씨는 교남학교의 어려움을 듣고 1936년 3월 교남학교를 직접 찾아 자신이 아끼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기부하였으며, 달성권번을 설립한 염농산(廉隴山) 여사(기생앵무)는 1937년 4월 20일에 택지, 건물 등 시가 2만여 원을 교남학교에 기부하였다. 염농산 여사로 말하자면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에 100환을 기부하면서 여자이지만 누구라도 천원이나 만원을 낸다면 자신도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하겠다고 하여 서상돈·김윤란(金允蘭)·정재학(鄭在學) 등으로 하여금 거금을 출연하게 만든 분이였다.



의출남자(義出男子)

(황성신문, 1907.3. 26.)

또한 낙동강 인근에서 해마다 물난리를 겪던 성주용암에 두리방천을 쌓아 홍수피해를 막아 주자, 다음 해인 1919년 5월에 성주 용암의 주민들은 '염농산 제언 공덕비(일명 앵무뱃돌)'를 세워 그녀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는 훈훈한 일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러한 그녀가 78세가 되던 해, 교남학교의 비운을 듣고 사재의 절반을 교남학교에 희사한 것이었다.



금강석지환을 교남학교에 기증
현시가 3백여 원 되는 것을 기생 유춘도의 특지
(조선중앙일보, 1936. 3. 7.)



고조되는 교육열
- 교남학교 부흥비로
- 이만 원 토지를 제공
- 부도 대구에 독지가가 속출
- 염농산 여사의 장지(壯志)

(동아일보, 1938. 5. 24.)

대구에 있는 신문기자로 조직된 칠조회에서는 교남학교 부흥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1936년 칠조회 주최로 소인연예대회(소인극)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부를 교남후원회에 기부하였으며 1937년 1월 19일에는 김태원 씨가 자신의 회갑연 등을 취소하고 현금 2만 원을 교남학교에 기부하였다.



교남학교를 구하자
칠조회가 분기 소인극의 수입을 의손
(매일신보, 1936. 3. 15.)



교남학교 부흥비로 현금 2만 원 기부
- 회갑연 비용의 일체를 중지코
- 대구 김태원씨 장거
(조선일보, 1937. 1. 23.)

1938년 2월 28일에는 경북조선인 도의원 안병규, 서병조, 문명기, 서병주, 임상조, 진희태, 이광래, 이성한, 윤세형, 조근영, 이대일이규선박인수, 고덕환이완석, 정운석, 이정기, 김명환, 김용주, 김영모, 이채우, 김재환, 오국영 등 24명이 회합하여 후원 별동대를 조직하고 교남학교 부흥책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삼십만 원의 목표로 재단법인을 조직하여 교남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가결하였다.



교남학교 후원에 나선 도의원에 관한 신문 기사
(조선일보, 1938. 3. 3.)



교남학교 후원에 나선 도의원에 관한 신문 기사

(조선일보, 1938. 3. 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이어진 교남학교 살리기 운동은 엄혹한 일제강점기 속에 민족혼을 바로세우기 위한 우리민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또한 학교 살리기 운동은 부호나 지역 유지, 정치인들만 참여한 운동이 아니었다. 넉넉지 못한 서민들, 팔시 받던 기생들도 분연히 떨쳐 일어난 대구 전체 지역민들의 가슴뭉클한 지역사회운동이었다. 석탄을 기증하고 회갑연에 쓸 돈을 주저 없이 기부하고 기생의 신분으로 어렵게 얻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도 학교를 살리기 위한 성금이 되었다.

교남학교를 향한 많은 이들의 지지와 사랑은 학교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남학교의 재정난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하였다. 교남학교의 부흥을 목표로 한 교우회와 학교 후원회가 조직되어 후원 모금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활동하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다. 이에 후원회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자 교남은 후원회와 연결된 모든 활동을 서서히 중지하였고 마 침내 후원회는 해산에 이르게 되었다.



발행. [대륜백년사]
학교법인 대륜교육재단 발행



2024년도 대륜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2024년도 대륜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2월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륜 출신 동문들 간의 연례행사로, 새로운 해의 시작과 함께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나누는 자리로 각광받았습니다.

정기총회는 은동열(58회) 사무처장 사회로, 이영주 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이원호동문(78회)의 재능기부로 시니어모델의 화려한 패션쇼와 함께 시작되었고 국민의례에 이어 이영





주 총동창회장(50회)의 인사말과 김기완재경동창회장(50회)의 축사, 김동현 교장선생님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예결산 승인과 회칙개정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김상철동문(51회)의 결의에 찬 취임식과 함께, 공로를 인정받은 동문들에게 감사패와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7대 총동창회장 배인호 명예회장(48회)과 이명광 사무국장(51회), 그리고 안동환 100주년 추진위원장(41회), 이창환동문(52회)께는 따뜻한 감사의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동창회장 취임식 및 시상식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동창회장인 김상철동문(51회)의 결의에 찬 취임사와 함께, 동창회 회원들에게 연회비 납부 우수기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신년교례회와 경연

2부인 신년교례회와 함께 하는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최동석 동문(58회)의 공연을 통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또한, 갓 졸업한 새내기(97회)들에 대한 환영도 진심어린 큰 박수로 표현되었고 체육대회 주관기(69회)의 우렁찬 결기와 함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2024년 대륜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는 동문들 간의 소중한 만남과 공감의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다음해에도 더욱 발전된 동창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스텝으로 고생하신 후배님들과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화려한 패션쇼를 재능기부로 공연해주신 이원호동문(78회)과 예술성 있는 사진으로 재능기부해주신 김혁상(70회)동문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35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제35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는 65팀 26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계획되었지만, 66팀 264명이 참여를 원해 일부 기수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5회, 49회, 67회, 73회 등 몇몇 기수는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직전까지도 불참자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틀 전 7명, 하루 전 3명이 불참 의사를 밝혀 대타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73회의 7명이 불참하여 이들의 자리를 메우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흩뿌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총동창회장님과 역대동창회장님들의 시타를 시작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는 2부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은동열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국민의례 후, 김상철 총동창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웅비하라 대륜, 영원하라 대륜"이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성한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인사를 하였고, 이육언 전 대륜고등학교장이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회 집행부가 체육대회 주관 기수로 인사를 했습니다.

시상식은 소재원 56회동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시상 내역으로는 단체전 우승팀인 51회에게 트로피, 상금 50만원과 피규어 4개가 수여되었습니다. 준우승팀인 54회에게는 트로피, 상금 30만원과 맥섬석 용기세트 4개가, 3위팀인 53회에게는 트로피, 상금 20만원과 맥섬석 용기세트 4개가 주어졌습니다. 롱리스트 상은 280m를 기록한 정동춘52(고28)에게 맥섬석 용기세트를 수여하였고, 니어리

스트 상은 0.5m를 기록한 주진원 (66회)에게 맥섬석 용기세트를 수여하였습니다. (300m를 기록한 신종구는 불참으로 인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전 신페리오 우승 박경홍(61회)에게 퍼터가, 준우승 서희준(68회)에게 웨지가, 3위 박성도(54회)에게 웨지가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터 행운상은 이동건(41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행사 중 제22대 대구 북구갑 우재준(80회) 국회의원이 라운딩이 끝나는 시간인 17시 15분쯤 클럽하우스에 도착해 동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전 동창회장, 은사님, 사무처장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즐겼습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불참 인원의 발생과 몇몇 기수의 참여 불가로 인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문들의 찬조와 참여로 골프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동문간의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 소재원 56회

제35회 대륜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찬조 현황

곽성근(39회)	맥섬석용기세트, 치약세트 각 10점
이상도(54회)	캠핑매트 80점
서기석(62회)	기념수건 300장
이철수(65회)	태권V 피규어 10점, 텀블러 20점
정창완(78회)	파름 60매
솔린코	퍼터2점, 웨지 2



동창회의 발전 방향과 동창장학회의 발전 방향

동창회와 동창장학회는 학교와 졸업생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후배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창회와 동창장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조직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동창회의 발전 방향

1.1. 조직 구조의 개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 위원회 설립 : 동창회의 활동을 다각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 모금 위원회, 행사 기획 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회원 관리 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지부 활성화 : 동창회 활동을 지역별로 확대하여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지역 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지역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리더십 개발 :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십 개발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리더십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기존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1.2. 커뮤니케이션 강화

동창회는 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동창회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동문들이 쉽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록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동창회 소식, 행사 일정, 사진 갤러리 등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자신의 소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 소셜 미디어 활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동창회 활동을 홍보하고, 동문들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인 게시물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뉴스레터 발행 :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동창회 소식, 동문 인터뷰, 행사 후기 등을 공유합니다. 뉴스레터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 행사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 정기 모임과 네트워킹 행사 : 매년 정기적인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여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동문들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기획하여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 선배 동문들이 후배 동문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후배들은 경력 개발과 개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사회 공헌 활동 : 동창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합니다. 봉사 활동, 기부 캠페인, 환경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1.4. 기금 조성 and 재정 관리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합니다.

| 기금 모금 캠페인 : 다양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기획하여 동문들의 기부를 유도합니다.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혜택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 투명한 재정 관리 : 기부금과 동창회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재정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동문들에게 공개합니다. 재정 관리는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받습니다.

| 기업과의 파트너십 : 동문들이 속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후원과 지원을 받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동창회 활동을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2. 동창장학회의 발전 방향

2.1. 장학 기금의 확대

동창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장학 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 : 동창장학회는 기부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기부 프로그램, 정기 기부 프로그램, 유산 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유도합니다.

| 기업 후원 유치 : 동문들이 속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후원금을 유치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학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공공 기금 활용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 기금을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2.2. 장학 제도의 다양화

장학 제도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적 우수 장학금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육성합니다.

| 재능 장학금 : 학업 성적 외에도 예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재능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 사회적 배려 장학금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2.3.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

효율적인 장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 장학금 신청과 심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수혜자들의 학업 성취와 개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선배 동문들이 멘토링을 제공하여 학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 동문 네트워크 활용

동창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동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합니다.

| 동문 기부 캠페인 : 동문들에게 장학회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리고, 기부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 동문 멘토링과 강연 : 동문들이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멘토링과 강연을 제공하여 학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문 네트워킹 행사 : 장학금 수혜자들과 동문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기획하여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들이 동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동창회와 동창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개선, 커뮤니케이션 강화, 행사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금 조성 및 재정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창회와 동창장학회는 더 많은 동문들과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동창회와 동창장학회는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재)대륜동창장학회 장학금 후원계좌

iMBANK(구.대구은행)

504-10-148730-3



대륜고등학교 2023

재부지역동문초청 동창회 송년의 밤



지난 2023년 12월 13일, 재부산대륜동창회는 지역 동문들을 초청하여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재부 대륜 동문회 부회장 이성백(50회)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참석한 동문들과 내빈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은사님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국민의례를 엄숙하게 진행했다. 이어서 대륜고 교가를 제창하며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행사에 임했다.

내빈 소개 시간에는 대륜총동창회장 이영주 화장과 여러 은사님들, 동창회 고문들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특히 신정택 고문(39회), 안동환 고문(41회)이 큰 박수 속에 소개되었으며, 각 지역 동창회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역 동창회장으로는 재경동창회장 김기완(50회), 재경산동창회장 서정규(49회), 재울산 동창회장 배기동(51회), 재부동창회장 정재철(49회) 등이 있었다.

정재철 재부산동창회장의 인사말과 이영주 총동창회장의 축사, 이 행사를 협찬한 신정택 고문(39회)과 대륜100주년 추진위원장 안동환 고문(41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정일웅 은사님의 축사가 동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축하 공연으로는 이종완 동문(49회)이 섹소폰 연주를 선보였고,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김동아 동문(40회)이 흥겨운 무대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1부 순서를 마치고 대륜 행사 동영상을 시청하며 식사를 즐기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협찬금 발표는 결산 후 동문회 밴드에 게시될 예정이며, 건배 제의는 이영주 총동창회장, 신정택 고문, 정재철 재부 동문회장이 맡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가는 길의 안전을 당부했다. 재부 대륜동창회의 이번 송년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Adieu!





재경동창회 성남 남한산성에서 동문가족 트레킹 대회

63·64·65회 주관, 동문과 가족 400여명 참석

2024.
04.
27



지난 4월 27일(토요일) 성남 남한산성 일원에서 재경동창회(회장 김기완, 50회) 주최, 63회·64회·65회 주관으로 제25회 재경가족트레킹대회가 은사님과 동문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63회·64회·65회 주관기수들은 이날 아침 일찍 성남 산성역 3번 출구 앞에 접

수대를 마련하고 참가 동문들을 맞이했다. 동문들과 가족들은 접수대에서 명찰과 음료, 간식을 받아들이고 속속 트레킹에 나섰다. 화창한 날씨에 나무가 우거진 트레킹 코스를 따라 동기들, 동문들과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건강도 챙기고 우애도 다지는 훈훈한 모습들이었다. 갈림길과 차도를 건너야 하는 건널목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관기수 동문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등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2시간 정도 트레킹을 마친 동문들은 행사장이 마련된 음식점에 도착해 공식 행사를 시작했다. 이종봉(63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간략한 국민의례 후 서경민(56회) 재경동창회 사무처장이 은사님과 주요 동문들을 소개했다.

김기완 재경동창회장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동도 하고 동문 간 우애도 다지는 자리에 많은 동문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행사를 통해 선후배들이 소통하고 상부상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과 함께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동창회에 더욱 많은 참석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철(51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을 벗 삼아 마음의 힐링을 얻고자 하는 힐링트레킹대회, 건강도 챙기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자연보호도 겸하는 행사를 통해 동문들의 결속과 우애를 한층 더 강화하자”고 강조하고 “선배님과 은사님께서 큰 산처럼 이끌어 주신 대륜의 정신과 전통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명감을 갖고 개교 103주년 대륜동창회를 더욱더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63회·64회·65회 주관기수는 초대의 말을 통해 “오늘 동문 선후배님들과 가족분들이 2시간가량 함께 트레킹하면서 남긴 발자취는 100년 역사에 빛나는 대륜 역사에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더하는 뜻깊은 발걸음”이라고 의미를 더한 뒤 “3개 주관기수는 모교가 만촌동 신교사로 이전한 첫해인 1989년에 각각 1·2·3학년으로 재학하면서 너무나 깨끗하고 최신식이었던 당시 최고 수준의 새 건물에서 학창 시절을 함께한 선후배 모임으로, 이런 인연이 있는 3개 기수가 만촌동 신교사로 이전한 지 35년이 지난 올해 다시 모여 제25회 재경대륜가족 트레킹 대회를 함께 준비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동문가족도 행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은경, 이영범(50회) 셋별산악회 회장 부인은 “이런 좋은 날씨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륜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주관기수는 행사장에서 다양한 경품을 추첨해 동문들에게 증정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공식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기수별로 배정된 식당 좌석으로 이동해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동기 간, 선후배 간 안부를 묻고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32회부터 73회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40년 세월을 뛰어넘어 선후배 간 우애를 돈독하게 다지는 자리였다.





대륜 46회 50주년 기념 축제 반세기의 우정과 추억을 나누다



2023년 10월 15일, 대륜 46회 동기들이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회장 성기중, 총무 전규석의 주도로 개최된 이번 5070 기념 대축제는 졸업 50주년과 70세 생일을 맞은 동창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동창들은 연회장을 가득 메우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졸업 후 반세기가 흐른 지금, 서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기발랄했던 옛 모습은 중후한 풍모로 바뀌었지만, 그리움과 반가움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세월의 무게 속에 고인이 된 친구들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는 그간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패 전달로 시작되었습니다. 동기들은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분위기는 음악과 함께 무르익어 갔습니다. 한자락 노래가 연회장을 울리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즐기며 옛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짧은 만남 속에서도 깊은 우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기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

니다. 80세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동기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교가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교가의 선율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며, 졸업 5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번 5070 기념 대축제는 단순한 동기회의 자리가 아니라, 반세기라는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들의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지나도, 대륜 46회 동기들의 우정은 변치 않음을 느끼게 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80세에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날의 감동과 추억은 오랫동안 동기들의 마음속에 남아,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큰 축복이 되어줄 이번 만남을 기념하며, 대륜고 22회 동창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9회 동기회 사무실 개소식



대륜 69회(고45)동기회는 다가오는 대륜총동창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토) 사무실 개소식을 하였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상철 총동창회장님, 은동열 사무처장님, 손재영 체류회장님을 비롯한 50여명의 선·후배 동문여러분들과 이육언, 임운형, 김태범, 김정동, 은종호 은사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69회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일) 개최될 예정이며, 사무실은 동창회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69회 동기회장 이호석은 "동창회 체육대회는 단순한 운동 경기를 넘어 동문 간의 우정을 나누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이번 체육대회는 체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동문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가족 모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무실 개소로 인해 체육대회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무실에서는 경기 일정 및 장소 조율, 참가자 모집, 홍보 활동,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달 첫 주 수요일 정기 월례회 및 모임을 운영



할 예정이며, 추후 동창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성훈(체육대회 집행위원장)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많은 동문들이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학교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족구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 외에도 동문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가족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부대행사가 준비될 계획이다. 체육대회를 통해 모인 기금은 학교 발전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반백 년의 만남

: 58개띠의 수난사!!

우리가 대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대륜가족이 된 지 올해로 꼭 50년이다. 우리 동기 친구들과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지 반백 년이라는 말이다. 근 66년을 살아오는 동안 무려 50년을 울고 웃으며 서로 비비대며 살아온 셈이다.

한편 생각하면, 거머리처럼 붙어 다녀 징글징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로서 눈만 뜨면 만나고 의지한 인생의 동반자였다. 어쩌면 어설픈 혈족보다 더 각별했는지도 모른다. 2024년, 특별한 한 해를 맞은 지라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순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지 회포를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백 년의 만남'을 자축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동기회 차원에서 청송 중앙산에서 산행 겸 축하연을 마련해 운명적 만남의 의미를 음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이와 별도로 재경동기회에선 클럽을 통째로 빌려 우리의 질긴 만남을 자축하는 파티를 가졌다. 우리 또 3년 후에 졸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만나서 질펀하게 놀 생각에 마냥 가슴이 부풀었다. 돈이고 시간이고, 얼마든지 기꺼이 낼 테니, 만날 구실을 잘 만들어 보세나!

●○ 우리 대륜고 26기, 통합 50기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다. 1인당 국민소득 70여 불의 최빈국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경험한, 굶주렸던 세대이자, 미국의 무상원조로 받은 옥수수 식빵을 먹고 자란 세대이다. 출생아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격변하는 변화의 물결을 온몸으로 받아낸 세대이자, 고도성장의 과실을 맛봄과 동시에 청춘을 불살라 피땀 흘리며 오늘의 선진 한국의 주역으로 몸을 바친 세대이기도 하다. '58년 개띠'는 흔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명사처럼 못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베이

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이 높을 때 태어난 일단의 사람들이다. 그 시기는 인구통계학적 맥락에서 국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아 수가 한 해 90만 명이 넘던 시기를 말하는 게 통상이다. 1955년부터 1964년까지의 시기를 1차 베이비붐 세대, 1965년부터 1974년까지를 2차 베이비붐 세대라 칭하기도 한다. 1차 베이비붐 시기엔 '58년 개띠'가 중심 세대라 할 수 있고, 2차 베이비붐 시기엔 '70년 개띠'가 중심 세대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통틀어 '58년 개띠'가 가장 유명한 건 그 시절이 가장 변화가 심한 변곡점이었던 탓도 있었지만, 은희경 소설가의 "마이너리그"란 소설의 영향도 컸다. 58년 동창생 4명의 얹히고설킨 25여 년 인생을 추적하면서 보통 사람의 흔들리는 역정을 경쾌한 터치로 그려낸 소설 "마이너리그"가 베스트 셀러의 반열에 오르면서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브랜드로 못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강한 개성과 파이팅 정신을 장착하고 좌충 우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간 덕분에 부러운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저돌적인 무대포 돌격 정신과 앞뒤 살피지 않는 불도저 추진력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 1965년부터 1981년까지 학창 생활을 하면서 근대와 현대에 양다리를 걸치고 고도 성장기의 열차에 올라타 혜택을 입은 점도 없진 않지만, 사회 경제적 변곡점에서 희생자가 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몸살을 앓기도 했다. 교육제도의 변화도 피해갈 수 없었다. 입시제도의 실험기에 맞닥뜨려 그 마루타가 된 것이다. 중학교 입학 전에 평균화란 거대한 물결을 만나 소위 뽕뽕이를 돌려 중학교에 입학했다. 입시지옥을



벗어난 건 긍정적이었다고 하지만, 원하지도 않은 엉뚱한 학교에 배정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에 다녀야 했던 건 최악의 기억이다. 고교 진학 시기에 도 변화의 물결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고교평균화의 물결은 간발의 차로 대구 '58 개띠'를 살짝 비켜 갔다. 서울, 부산만 우선 고교를 평균화해 무시험으로 진학하고, 대구는 그다음 연도(1975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대구의 중3이었던 '58 개띠'는 고교입시의 막차를 탔다. 평균화가 먼저 시작된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비록 차선이긴 했겠지만, 대구지역의 명문고로 진학하기 위해 대구로 몰려드는 분위기였다.

●○ 우리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마지막 고교입시를 치렀다. 집에 돌아와 다들 긴장을 풀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화도 보고 샴페인을 터트리기도 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탈이 났다.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던 고교입시가 사상 초유의 입시 부정으로 휘말려 왁자지껄했다. 문제지에 답을 표시한 부정이 드러나고 그 기상천외한 수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답 문항의 번호 숫자를 이탤릭체로 인쇄해 부정 연루자 입시생에게 정답을 가르쳐준 터였다. 사상 초유의 입시 부정으로 세상이 온통 떠들썩 하자, 경북 교육감이 자살하고 재시험이 결정되었다. 해당 부정입시에 가담한 입시생을 속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른 시험을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지금이라면 턱도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들 여지는 있겠지만, 수많은 무고한 수험생에게 재시험이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단순무식한 억지였다.

●○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많은 수험생의 기득권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예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바르고 사려 깊은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드러난 부정 연루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를 선발한 다음, 공소시효까지 계속 추적해 그 부정 여부가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후속 조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어쨌든지 주사위는 다시 던져졌다. 신학년 학사일정과 입시 일정이 빠듯해 전기 시험 일자와 후기 시험 일자 사이에 재시험을 쳐야 했다. 그러자면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후기 입시 원서를 내고 전기 재시험을 응시해야 했다. 그다음 해가 무시험 뺑뺑이여서 재수할 이유가 없으니 혹시라도 전기 입시에 낙방하면 무조건 후기 입시에 응시해야 했다. 전기 시험도 치기 전에 후기 시험 원서를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후기 최강자였던

고교가 전기로 간 상태라 우린 대륜고를 선택할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사실, 담임이 임의로 대륜을 선택해 준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합격을 자신한 탓이었던지, 누구도 그 선택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전기 입시 재시험 결과가 발표 나고 합격자가 확정됐다. 낙방자는 뜻하지도 않았거나 잘 알지도 못했던, 후기 대륜고 입시를 치러야 했다. 후기 합격자가 정해지고 대륜고 입학이 확정된 이후에도 고교 진학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 꿈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어린 나이의 뼈아픈 좌절은 솟아오르던 기를 꺾어놓았다. 안으로 스스로 비하하고 자조하는 마음이 대세였지만, 겉으로 차분하고 조용했다. 가려고 시도했던 고교의 학생을 만나기라도 하면 잠재하던 콤플렉스가 도지곤 했다. 튀지 않으려고 수그리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밴 이점도 있었다.

●○ 우리 동기들이 모이면 고교입시 부정과 함께 등장하는 가장 핫한 화제는 단연 마스게임이었다. 고 2학년 때 광복 30주년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리고 대륜고가 경북여고와 함께 마스게임을 맡았다. 당시 의식 있는 분들이 학업에 방해된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자기 보신과 허명에 눈이 팔린 몇몇 인사들의 힘에 밀려 결국, 우린 마스게임의 희생양이 됐다. 마스게임을 해내려면 기본 머리가 있어야 하니 대륜 수준은 되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부추김 내지 고드김도 있었다. 지금이라면 난리 날 일이었다.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우린 운동장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청춘의 뜨거운 피가 펄펄 끓던 나이에 허구한 날 흙바닥에 모여 앉아 히히덕거리며 음담패설을 일삼았고, 철없는 일탈과 달콤한 탈선을 함께 모의했다. 1977년도 대입에서 대륜은 유사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만약 마스게임만 없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터다. 지금 생각해도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 나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장관, 장군, 경찰청장, 중앙부처 국장, 구청장을 배출했고, 글로벌기업 사장과 임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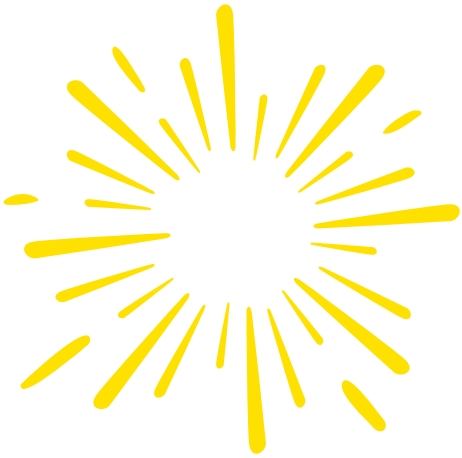
업가, 대학병원장, 대학교수, 모범적인 귀농자 등 무수한 인재를 배출했다. 비록 들어올 땐 뿔뿔이하고 미약했지만, 실패와 수난, 역경을 거름 삼아 졸업 후엔 믿음직한 모습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다. 출세와 영달이 인생 성공의 잣대라 할 순 없지만, 열심히 살아온 증표 정도는 된다고 할 터다. 비록 밖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우리 동기 모두 하나 같이 보석 같은 인재라는 사실에 적의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인생 이모작을 살아가면서 만날수록 그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 우리는 이제 모두 대륜가족의 일원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간다. 비록 한때 선호와 선택이란 과정을 열치기로 두루뭉수리 빼앗기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겸손하고 성실히 살아가라는 신의 계시였던 듯하다. 우리가 대륜가족이 되지 않았다면 멋지고 훌륭한 친구도 만나지 못했을뿐더러 애국애족 정신과 뜨거운 열정, 끈끈한 정을 수혈받지 못했을 것이다. 대륜 출신은 어디를 가도 대륜가족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대륜 후배라면 초면에 대뜸 말을 놓는 걸 보고 놀라고 부러워하는 비동문의 모습을 대하면 괜히 우쭐해진다. 길 가다가 대륜 학생을 만나기라도 하면 어깨를 툭 치면서 웃고 가는 건 오직 우리 대륜가족뿐이라는 말이 이젠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날 그럴듯한 기회를 또 만들어내야 할 텐데, 뽕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긴, 그냥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어디 덧날까 몰라. 그나마 여건이 될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봐야겠지. 친구야, 사랑한데이.

오철환 (50회)

대륜문화회장, (사)현진건기념사업회 이사장,
대구소설가협회장, 대구일보 객원논설위원,
소설가, 수필가, 칼럼니스트, 전 대구시의원





2024년 6월 1일,
대륜 50회 동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분으로 대구지역 동기들은 청송 주왕산
서, 서울지역 동기들은 서초동에 위치한
그룹 디패밀리 카페에서 초여름의 싱그
움을 만끽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대구지역 동기들은 청송에 사는 우병윤 동
가 자기동네 왔다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
특별 찬조까지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준비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참
한 모든 동기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
고 반세기의 만남을 자축하며 뜻깊은 하루
보냈습니다.

서울지역 동기들은 진재경 사무총장의 사
회로 시작된 1부에서 국민의례와 교가 제
창, 그리고 김택유 동기의 지휘 아래 축하
“셋별은 영원하라”를 제창하며 우리의 우정
을 다졌습니다. 온종석 동기의 축시 “동무가”를 통해 감동을 나누었고, 학창시절과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로 간 친
구들을 추억하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재운 동기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초청가수 공연과 장기자랑 및 시상식이 이
어졌고, 응원가 제창 및 추억의 응원 한마당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추억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해주신 모든 동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륜 50회 셋별친구 만남반세기 큰잔치

셋별은 영원하라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은사님과 함께 초청 나들이



스승의 달을 맞아 은사님 9분을 모시고 따뜻한 봄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밀양의 영남루였습니다. 은사님들과 함께 이곳을 둘러보며,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감상하고, 옛 정취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트윈터널은 LED를 테마로 한 환상적인 빛의 세계였습니다. 은사님들께서는 다채로운 빛의 향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고, 모두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점심은 47회 박치문 동문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은사님들과 동문들 간의 담소가 이어졌고, 오랜만에 뵈는 얼굴들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전설을 품은 밀양의 명소, 만어사를 찾았습니다. 만어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설을 되새기며, 모두들 깊은 감동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이었습니다. 맑은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 죽도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은사님들과 동문들은 바다 내음을 맡으며 한가로이 걸었고, 즐거운 대화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인근 횡집에서 저녁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싱싱한 해산물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은사님들에게 큰 만족을

드렸고, 따뜻한 환담 속에서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8회 은동열 사무처장과 64회 김문환 동문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또한, 김상철 동창회장과 재부산동창회에서 금일봉을 찬조해 주셔서 은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32회 채대훈 동문은 귀한 선물을 찬조해 주셨고, 이는 은사님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여 더욱 뜻깊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은사님들과 동문들 모두 이번 봄나들이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은사님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드렸고, 우리 모두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한 이번 나들이는 은사님들에게 바치는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 분들의 행복한 미소와 함께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대륜새별합창단 음악회

날마다 소풍

이번 음악회(2024. 6. 15)는 다양한 장르와 참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합창, 솔로, 앙상블, 그리고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곡들이 선보였습니다. 아래는 몇몇 곡에 대한 간략한 리뷰입니다.



“홀로 아리랑” 합창 (서유석 노래)

서정적인 분위기와 아리랑의 감미로운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합창단의 조화로운 연주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Tenor 정현호)

정현호의 뛰어난 음성과 표정으로 뮤지컬의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he Prayer” (Baritone 민용식)

민용식의 목소리는 천사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Andrea Bocelli와 Celine Dion의 곡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Rang” (Aerophone 김준우 47회)

김준우의 작곡은 현대적이고 독특했습니다.

“날으는 밤나무”

날으는 밤나무를 연상케 하는 음악이었습니다.

“La Califfa” 플루트 연주 (Flute 이정은)

이정은의 플루트 연주는 우아하고 섬세했습니다.
영감적인 곡을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별 헤는 밤” (Tenor 최요섭 47회)

윤동주 시를 바탕으로 한 곡은 감성적이고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최요섭의 목소리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카레” “희망가” 합창

희망가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별이여 영원하라” 합창

이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와 참여자들의 열정으로 가득 찬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을 주고 받는 공간에서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고서라도 갈게요...

안명환 58회
영천시 영동중학교 교장

산티아고를 떠올린다. 물질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외부와 소통의 창구는 막힌다. 자연스레 존재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행복도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에 세상의 많은 사람은 나름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찾아 그곳 순례길을 찾는다. 첫바퀴 돌듯 살아왔던 나의 인생길에 뜻밖의 동행자를 만났다.

학교 진입 네거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료하게 대기하던 내 눈에 간판 글씨가 훑 들어왔다. ㅇㅇ패션 정장 한 벌 149,000원. 재빨리 우회전하고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무작정 Y군을 불러냈다.

Y군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이다.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서울 쪽의 대학에 입학했다. 이제 스무 살이 되어 세상사엔 아직 햇병아리이지만 학창 시절 또래에겐 느낄 수 없는 생각의 깊이가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여 칭찬을 많이 받던 아이였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그의 드러난 겉모습과 달리 가시덤불 같은 환경에 발버둥 친 그 내면의 사연들을 알 수는 없었다.



Y군을 처음 만난 건 몇 해 전 중학교 2학년 수업 시간이었다. 반듯이 앉아 귀공자처럼 환한 미소를 띠며 수업을 경청하는 태도에 내가 도리어 바라기가 될 지경이었다. 글씨는 얼마나 반듯한지 또래 아이들과는 그 격이 달랐다. 자연스레 나의 업무였던 교무실 전체 시간표 기재하는 일을 맡겼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어진 일을 척척 해내며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Y군은 한부모 가정의 첫째이고 밑으로 동생 두 명이 있다.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아 그 흔한 학원 한번 가지 못했다. 혼자서도 학교 수업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며 학원 가는 건 사치라 생각한 다며 애늬은이처럼 말했다. 오히려 아픈 엄마 걱정 에 긴 탄식을 자주 내쉬곤 했다. 순례자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언행에 나도 모르게 같이 옆에서 걷게 되었다.

몸이 불편한 Y군 어머니는 혼자 어린 세 남매를 돌 보기에 너무 벅찼다.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커가는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솔솔 찼은 부담에 결국 아파트 평수를 줄여 버텨왔다고 한다. 인생길이 험클어진 누더기처럼 삶에 지쳐있

었고 신의 자비란 말도 너무 멀기만 했다. 주방 일을 하며 한 잔 두 잔 배운 술이 이제는 매일 마셔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를 가슴 졸이며 보았던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 그래도 Y군은 동생들을 씻기고 어르며 주저앉은 집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다.

나는 그와 만남을 행운이라 생각했고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다.'며 알 듯 모를 듯 오묘한 생각을 비쳤다.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음으로 화답했다. 풍랑의 시기를 잘 헤쳐온 그는 고등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였다. 학업에서도 줄곧 상위권을 달렸고 각종 동아리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간혹 교정에서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머금고 쏘르륵 뛰어온다. 다짜고짜 내 팔짱부터 끼고 안부를 묻는 걸로 시작해 집안 사정까지도 꼬치꼬치 수다를 떨었다.

Y군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아이가 도무지 제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고3이 되어 자신의 진로와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어깨가 얼마나 무

거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우울증이라고 했다. 설마 했던 일이라 안타까웠다. ‘한 번쯤은 세상에 소리치고 박차고 나와도 되는데 억누르다 결국 터지고 만 것인가?’ 우리는 나란히 맥도널드 창가에 앉았다. 세상사를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어쩌면 순례길에서 만난 도반(道伴)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2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베어 물고 싱긋이 미소를 나눴다.

중간고사 첫날이다. Y가 시험에 결사했다. 담임교사도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를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만났다. 우리는 말없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무심한 듯 그네만 탔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한층 켜해진 모습의 그에게 “조금만 더 참고 나랑 여행 가자.” 한마디 겨우 던지고 왔다. 다행히 둘째 날부터 시험엔 응시한 모양이었다.

더위에 지쳐 매미 소리도 사귀어갈 즈음 그를 다시금 만났다. 이제 수능까지 는 딱 백 일이 남았다. 혹여 누가 볼세라 우리는 호젓한 식당에서 둘만의 만찬을 즐겼다. 그는 비 온 뒤 봄꽃처럼 생기를 다시 찾은 듯했다. 나는 무알코올 맥주를 따르며 백일 후의 합격을 기원했다. 그는 함박웃음을 만면에 띠고 자신은 스페인어과에 진학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라서 선택했다고 한다.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는 낭만적인 나라라며 향후 그곳에서 외교관으로의 길을 가겠다고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다. 얼마 전 차분하게 치러진 졸업식 후, 교문을 나서 는 Y를 힘껏 안아 주었다. 힘든 시기 잘 보내주어 고맙고 이제는 네 갈 길 훌훌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축복의 말을 건넸다. 며칠 후 서울서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다. 보지는 못했지만, 펄쩍펄쩍 뛰며 흥분한 것이 분명했다. 질곡 깊었던 촌놈이 드디어 또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아빠가 너무 센스 있으시네요.” 가까이 진열된 양복을 집어 든 것뿐인데 주인아쭈마가 칭찬을 과하게 늘어놓는다. 이 시기의 서울엔 반드시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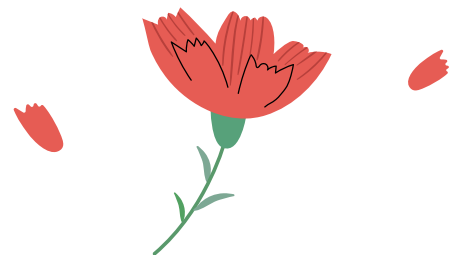
도 필요하다며 자꾸 권한다. 그러다 보니 와이셔츠, 넥타이 등의 품목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그래도 ‘입은 모습들이 어쩔 모두 이렇게 귀티 나고 멋있을 수가 있을까?’ 내 스스로도 감탄이 나왔다.

싱글벙글 Y도 자기 모습에 흠뻑 도취 된 듯 보였다. “선생님, 여행 약속 기억하시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꼭 가야 해요.” 예전 교실에서 처음 보았던 그 앳된 소년의 눈빛으로 애원했다. 함께 갈 수 있을지 우물쭈물 어설픈 답변을 했더니 “제가 업고서라도 갈게요.”라며 매장이 떠나갈 듯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외친다.

순간 나는 멍하니 입만 떡 벌린 채 서 있었다. 그가 싱거운 미소를 머금고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양 눈썹크를 보낸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삶의 산티아고로 떠나는 그의 여정을 축복하는 전아제가 된 셈이었다. 주인아쭈마는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우리들 이야기에 끼고 싶어 안달 난 표정이다. 결제 카드를 내밀어도 연신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깨달은 것들은 무엇이이었을까? 어쩔 우리 인생이란 것이 그 길과 같은 것은 아닐까. 그의 힘든 환경도 인생 순례길의 시작인 셈이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힘들어하며 되레 그가 나를 업고, 나는 그의 체온을 뜨겁게 느끼며 어느새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선생과 제자가 아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산티아고로 갈 준비를 하는 셈이 되었다.

아내가 월급 이체일인데 또 빈 것 같다며 연신 잔소리를 해댄다. 나는 그냥 빙긋이 웃었다. ‘그래, 날 끌고 순례길 갈 사람 힘 북돋운다고 그랬어.’ 다시금 미소가 머금어진다.



동창회 산악회 효과

동창회에서 산악회를 조직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 건강한 활동 촉진

산악 등반은 체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창회 멤버들에게 산악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팀 빌딩

산악 등반은 팀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 함께 도전에 맞서는 과정은 동창회 멤버들 간의 유대감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자연 경험과 휴식

산악 등반은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동창회 멤버들에게 자연과의 소통과 조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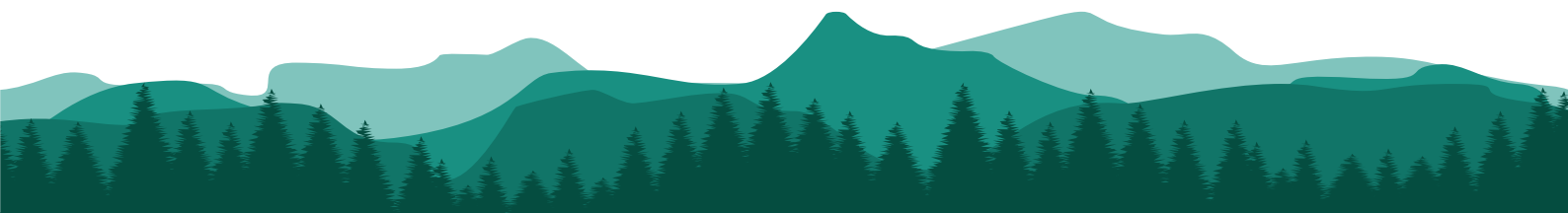
●○ 문화 교류

산악 등반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풍경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등,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동창회 활동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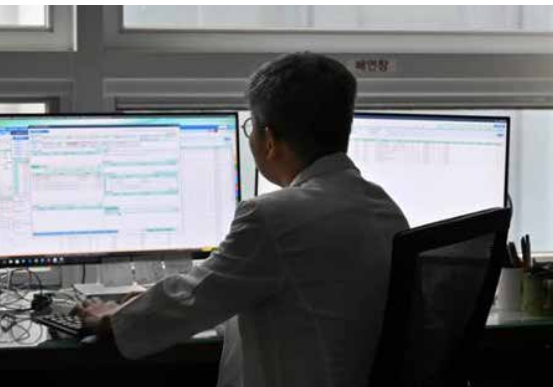
동창회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멤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악 등반은 이러한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한 부분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효과들을 고려하여 동창회에서 산악회를 조직하는 것은 멤버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고 동시에 동창회 활동의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동열 (58회) 총동창회 사무처장



산모가 또 죽었다 죽을 뻔한 산모 살려낸 의료진 소방서 언급한 이유는?

양수색전증 산모 신속 전원 390분 사투! 산과·소아과·마취과·영상과 유기적 협진!
돈 많이 드는 고위험산모센터 턱없이 부족, '완성형 병원' 확대로 긴급상황 대응 필요
"화재 적다고 소방서 없애지 않는 것처럼 생명 살릴 '분만 인프라'는 공공재로 봐야"



성원준 (67회)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4월 24일 병원 수술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대구=정다빈 기자

11년 간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는 389명. 만혼·노산·시험관·식습관 변화로 고위험 임신 비중은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엑셀런스랩은 100일 동안 모성사망 유족 13명, 산과 의료진 55명의 이야기를 통해 산모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붕괴가 시작된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했습니다.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그때 그 수술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를 곁을 지켰지만, 생사 기로에 있던 그 산모를 살려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2019년 7월 9일 오후 2시 30분쯤 외래 진료를 보고 있던 성 교수는 대구 시내의 한 분만병원 원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원장과는 별다른 인연도 없고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다. 원장은 전화기에 대고 다짜고짜 응급 산모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분만 중 양수가 터져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다.

만 40세였던 산모는 오후 2시 20분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 전형적인 양수색전증 증세를 보였다. 산모 8,0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한다는 양수색전증은 양수가 산모 혈관에 들어가 생기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벌에 쏘인 뒤 보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비슷하다.

양수색전증은 사망률이 61~86%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일단 증세가 나타나면 산모를 포기하더라도 아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산부인과 교과서에 언급될 정도다.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해 사전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공포감을 더한다.

산모 회복까지 6시 30분간의 사투



성 교수는 원장에게 일단 환자를 보내라고 했다. 그는 급히 외래를 다른 교수에게 부탁하고 환자에게 달려갔다. 그때가 오후 3시. 산모는 의식이 없는 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에 도착했다. 도착 후 상태를 체크해보니 최고 혈압이 30~40mmHg 수준으로 너무 낮았다. 아기도 아직 산모 배 안에 있었다. 성 교수는 카트에 올라타 주먹으로 질 출혈을 틀어 막으며 수술방으로 밀고 들어갔다. 마취과에 협조를 구할 여유도 없어, 일단 수술방에 들어간 뒤 마취과 선생님을 불렀다.

오후 3시 20분. 병원에 온 지 20분 만에, 양수색전증 발현한 시간 만에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다. 오후 3시 30분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산모 혈압이 너무 낮았다. 여기에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 출혈은 잡히지 않고, 피가 줄줄 흘러 내렸다. 수술 시 자궁 동맥들을 모두 묶어 지혈했지만 봉합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오후 4시 50분 곧바로 환자를 영상의학과에 보냈다. 이때 흘린 피만 2ℓ가 넘었다.

영상 장비를 보며 침습 시술을 하는 인터벤션(영상중재치료) 의사는 색전술(혈관 차단술)을 통해 자궁 동맥 10여 군데의 출혈을 잡았다. 당시 혈압은 30/15mmHg로 성 교수도 이렇게 낮은 혈압은 처음 봤다고 했다. 오후 7시 온갖 혈압 상승제를 투여해 봤지만 진척이 없었다. 환자 가족 입장에선 애가 탈 수밖에 없었다. 성 교수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하자, 산모 동생은 고함을 질렀다.

산과는 소아과·마취과·영상과 원팀으로 굴러간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뒀지만, 환자 상태는 조금씩 회복됐다. 혈압이 30~40mmHg를 오가다 저녁 9시 10분 60/45mmHg까지 올라왔다. 위험한 시간을 잘 버티니 생사의 변곡

점을 지나 회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산모는 깨어났고, 오후 11시 110/70mmHg로 정상화됐다. 혈압이 낮은 상태로 지속되면 신체 손상이 남기 마련이지만, 다행히 산모에게는 장애가 남지 않았다. 성 교수는 깨어난 환자에게 "산모님, 정말 요단강 건넜다 오셨다"고 말했다. 산모는 폐렴 및 간 손상으로 치료받다가 입원 12일째 건강히 퇴원했다.

성 교수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분만 인프라 구축의 지향점이 모두 담겨 있다"고 했다. 우선 신속한 전원이 중요하다. 분만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 인근에 있어 10분 내 전원이 가능했다. ①고위험 산모는 늦어도 한 시간 내에 전원돼야 손을 쓸 수 있다. 협진 체계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평일 낮에 전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마취과와 영상의학과 의료를 바로 부를 수 있었지만, 한밤중이었다면 산모 생사는 장담할 수 없었다. ②산과·소아과·마취과·영상의학과와 유기적 협진이 가능한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소방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국일보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상급종합병원 산과 교수 12명도 성 교수의 생각에 공감했다. '완성형 병원'이 많이 생겨야 지금처럼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2024. 5. 13 한국일보 발췌)
<https://www.hankookilbo.com>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산모와 간호사들에게 받은 편지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성 교수에게 산모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대구=정다빈 기자





대륜55회 40주년 및 환갑기념 일본 단체 여행기 ✈

"인생은 지금부터"를 가치로 내걸고 다녀오다!

“인생은 지금부터”를 가치로 내걸고 우리 55회 동기들 56명은 지난 2023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에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1갑자의 시간인 60년을 살아온 55회 동기들의 환갑과 대륜고 동기로 40년을 함께한 그 세월을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자축하기 위해 마련한 소확행 여행이었다. 약 2년 전 부터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로 미뤄지다가 마침내 이 기간 동안 다녀오게 되었다. 여행지, 경비, 시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최대한 많은 동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 아래 일본 2박3일 여정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원용 동기회장은 처음 이 행사의 제안부터 경비문제에 이르기까지 앞장서며 각종 모임 때마다 동기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사전준비와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56명의 동기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2박3일의 우리 여정을 되살려 본다.

11. 4 첫째날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첫 해외여행의 설렘 때문인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5시경 법원 앞에 모여 김해공항 행 전세버스에 올랐다. 동기들도 나처럼 모습은 부스스 했지만 표정만은 어린 시절 소풍 온 친구들 같이



마냥 들떠 있는 듯 했다. 서울과 수도권 동기들은 인천공항에 모여 출발했다. 코로나로 여행을 못했던 탓인지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다. 구름 위를 날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간사이공항에 도착하니 출국장 못지않은 장사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11시경 서울 동기들과 합류해 기념촬영 후 2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고베의 롯코산에 올라 전경을 구경하고 바비큐 식사를 했다. 바비큐 특식이지만 우리네 식당의 삼겹살 파티와 흡사했다. 작은 에피소드 하나. 준호와 정용이 등이 앉은 테이블에서 고기가 타서 판을 좀 바꿔 달라는 뜻으로 “판 기리까이”라고 했더니 고기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 땀에는 일어난 출신이라고 일본어도 좀 섞었는데 말이다. 우리나라 도로보다 많이 좁고 규정속도도 낮다 보니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 오사카로 돌아오니 벌써 저녁시간이 되었다.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대형 사브사브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이번 여행의 공식 개회식을 했다. 참석자 모두가 한사람씩 일어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회장단도 감사와 자축의 인사말을 전했다. 송학이는 싱가포르에서 왔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행사 후 식당은 본격적으로 시끌벅적해졌다.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 지 친구들은 마치 아지매들처럼 수다를 떨었다. 식당의 일부 술은 동이 나기도 했다. 만찬 후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오사카 도톤보리 밤투어에 나섰다. 이번 여행의 첫 자유시간이었다. 대부분은 맛집이나 술집을 찾아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 밤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한국서 온 아지매들과 미팅을 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나는 자칭 일본통 문식이를 앞세우고, 진철이, 창훈이와 술집을 돌았다. 호텔방을 찾아온 친구들과 밤늦도록 놀다가 싱가포르에서 온 송학이를 만나 새벽 3시 넘어 까지 얘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11. 5 둘째날



이날 여행의 주 목적지는 교토의 청수사 및 대나무숲길이었다. 어젯밤의 격렬한 주전 탓인지 교토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가이드의 소리만 들릴 뿐 거의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청수사 앞 가게들의 전통이 대부분 100년이 넘는단다. 그래서인지 가게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였는데도 호객행위도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 같았다. 청수사는 규모만 클 뿐 우리의 사찰보다 아름답다는 느낌은 주지 않았다. 대나무숲길도 울산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인력거와 인력거를 끄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신기했다. 크지 않은 강, 목조주택들, 조용한 분위기의 교토는 낯선 아국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교토를 뒤로 하고 오사카로 돌아와 다시 또 저녁 자유시간을 맞이했다. 어제의 흥분이 좀 가라앉은 듯 친구들은 유유자적 생선시장도 둘러 싱싱한 참치회나 해산물을 놓고 간단히 술을 먹었다. 몇몇 친구들은 어제 못한 맛집투어를 하느라 먼 곳까지 가기도 했다. 어제보다는 일찍 호텔에 돌아와 보니 수십 명의 친구들이 1층 식당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한 친구는 당초 2박3일이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3박했으면 죽을 뻔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11. 6 셋째날



이날의 주 여행지는 오사카성과 나라지역의 동대사, 사슴공원이었다. 오사카성 자체는 9층이라 해도 그리 높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다만 그 주변이 생각보다 꽤 넓었다. 본성을 둘러싼 해자의 크기를 보며 싸움이 많았던 일본의 과거를 짐작케 했다. 백제인이 넘어가 세웠다는 나라 지역에 가니 웬지 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동대사의 거대한 불상을 보면서는 사람과 종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떨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사람과 너무도 친숙한 사슴을 보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기

여행 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친구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던 기억 외에는 모두가 희미하다. 하지만 많은 동기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다”는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해외여행이라곤 처음이었던 필자에게도 오랫동안 기억될,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생각난다.

우리 중 누군가 그랬다. 우리 칠순 때도 같이 여행가자고.

대륜56회 40주년 제주 여행기 ✈

우리가 1983년 2월 졸업을 하고 40년이 지났다

1983년 2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2023년, 우리는 다시 모이기로 했다. 졸업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여행을 제주도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 준비 과정에서 대구를 떠나 제주도로 답사를 떠났을 때, 우리는 옛 친구들과 어울릴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첫날 저녁 식사 장소와 숙박시설을 점검하며, 친구들과 추억을 되새길 놀이와 활동들을 고민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숙소에서 제주공항까지의 둘레길을 함께 걷는 것이었다.

소재원(56회)

첫째 날_ 도착과 저녁 식사



2023년 7월 7일, 우리는 각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다. 몇몇 친구들은 미리 도착해 골프를 치거나 한라산을 등반하며 시간을 보냈고, 다른 친구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저녁 6시, 우리는 모두 <제주베이통갈치구이>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졸업 후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어울렸다.

둘째 날_ 오징어게임



둘째 날 아침, 우리는 4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의 <애월스테이호텔> 강당에 모였다.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한 친구들이 많아 굳이 단체로 이동할 필요 없이, 우리는 호텔 강당에서 오징어게임을 하기로 했다. 4개 조로 나누어 시작된 게임에서 승리한 팀에게는 상금이 주어졌고, 패하거나 반칙을 한 팀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실내에서 진행된 오전 게임과 점심 복불복 게임은 우리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점심 휴식시간에도 우리는 게릴라게임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며 소소한 선물을 받았다. 오후가 되자 게임의 상금은 점점 더 커졌고, 친구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풍선 족구게임은 그야말로 한바탕 전쟁이었다. 게임이 끝난 후 우리는 <해성도뚜리> 식





당으로 이동해 흑돼지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바닷바람을 맞으며, 정겨운 친구들과의 대화는 밤 늦도록 이어졌다.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옛 추억을 되새겼다.

셋째 날_ 상금 사용과 귀가



셋째 날 아침, 우리는 호텔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각자 또는 그룹별로 호텔을 나섰다. 아침 일찍 골프장으로 향하는 친구, 둘레길을 걷는 친구들을 배웅한 후, 나는 호텔 계산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제주시 오라로에 있는 <먹구슬낭카페>였다. 한 친구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제주도의 특산물과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카페에 도착한 우리는 각자 게임에서 받은 상금으로 원하는 특산물을 구입해 집으로 택배를 보냈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망고 비웃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더욱이 소중한 듯했다. 이후 우리는 공항으로 걸어가 각자 예매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에필로그

이번 졸업 40주년 제주도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안겨주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딱지치기를 하던 기억이 떠올랐고,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도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이번 여행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장을 장식하는 시간이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번 여행의 추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다한 인생 한 장의 여행이었다.

셋별인동정

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에 당선



김석기(44회)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3선, 경주시)이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6월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인 안철수 의원과 경선을 치른 결과, 재석의원 95인 중 김석기 의원이 70표를 얻어 25표를 얻은 안 의원을 제치고 외교통일위원회 단독 후보로 선정되었고,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당선



우재준(80회)

우재준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당선인은 1988년생으로 대구·경북(TK)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다. 우 당선인은 자신이 못하게 되면 청년층의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사업 업계 2위 도약



이병국(55회)

"아시아나항공 직원 800여명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오는 2026년 기업공개(PO)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원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이병국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사진)는 6월 17일 매일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포부를 밝혔다. 에어인천은 2012년 설립된 국내 유일 항공 화물 전문 사업자다. 현재 B737-800SF 4대의 항공기로 아시아 노선 위주의 화물사업을 운영 중이다. 에어인천은 산업은행 M&A(인수·합병)실 출신 이병국 대표가 이끄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로 있다.

제36대 KBS 춘천방송총국장 임명



김성하(58회)

김성하 KBS춘천방송총국장은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춘천방송총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1993년 KBS 공채 19기로 입사해 시청자서비스부 팀장, 시청자서비스부장, 수신기술운영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SGI서울보증 신임 사장



이명순(60회)

SGI서울보증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륜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6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LG디스플레이 대표 선임



정철동(53회)

LG반도체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LG필립스LCD 생산기술담당 상무를 거쳐 LG디스플레이에서 생산기술센터장 상무, 생산기술센터장 전무, 최고생산책임자(CPO) 부사장을 지냈다. LG화학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장 사장으로 승진해 유리기판과 수처리필터 사업을 조기에 안정시켰다. 2019년 LG이노텍 대표이사가 됐으며 2023년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로 옮겼다. LG디스플레이의 실적개선을 위해 원가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전력 대구본부장 취임



황상호(58회)

황 본부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륜고등학교, 경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동래지사장, 천안지사장, 동대구지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안정적 전력공급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변화와 혁신에 동참해 위기 속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소통과 신뢰, 협업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故 해병소령 이인호 현충비 선정



대구지방보훈청은 5월 지역 현충 시설로 고(故) 해병 소령 이인호 현충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인호 현충비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이 소령을 기념하기 위해 1967년 5월 경북 청도군 청도초등학교 안에 건립됐다.

이 소령은 1931년 청도군 청도를 고수리에서 태어나 청도초, 대구 대륜고를 거쳐 해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했으며 1953년 사관학교 졸업 후 해병 소위로 임관했다.

[대륜총동창회사] 책 100권 구매 보급



'셋별'의 아들 이병연(중36회)

이병연 동문은 중(36회) 출신으로 대구상고를 나왔으나 고 출신 동문 못잡게 동문애가 강한 대륜인이다.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던 30대부터 현재까지 근 40년 동안 재경동창회에 부지런히 참석해 동문들과 친목을 다지며 동창회에 협조해왔다. 가장 큰 협조는 [대륜총동창회사] 편찬위원회가 '새벽 밝힌 셋별'을 찾을 때, 동문 선배인 선고 이장호(제4회, 교남학원 4회)가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제보하고 자료를 보내준 일이다. 평소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자료는 유효·유용하였다.

그리하여 이장호는 '추원보본(追遠報本)' 정신을 실천한 유학자로 [대륜총동창회사]에 교육학술분야의 '새벽 밝힌 셋별'으로 수록되었다. 동창회 사업에 대한 그의 두 번째 협조는 [동대륜총창회사] 100권을 구입해 널리 보급한 일이다. 그는 "책 구입비가 개교100주년 사업의 핵심인 셋별학사 확보 자금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장학금 지원 차원에서 일조했다"고 말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창회, 회비 납부에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륜 동창 여러분!

우리 동창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추억과 우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동창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비 납부는 우리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비는 동창회 행사, 모임, 기념행사,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회비 납부는 동창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1. 시간 내에 납부해주세요!

년회비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동창회 활동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2. 동창회 활동에 참석해주세요!

회비를 납부한 동창들로 인해 더 다양한 행사와 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며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어봅시다.

3. 동창회 홍보에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동창회 활동을 알리고 다른 동창들에게

회비 납부의 중요성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동창회,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 사무처장 드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iM뱅크(구.대구은행)	062-10-005715	대륜동창회
농협	351-0166-3854-93	
(재)대륜동창장학회 장학금 후원계좌		
iM뱅크(구.대구은행)	504-10-148730-3	대륜동창장학회

※ 성명 옆에 통합기수 반드시 표기 (예:홍길동58)



천년 대륜을 향해 비상하는 대륜인
2024년 103주년 제 45회 대륜총동창 체육대회

체육대회 단다!
준비하겠습니다!

- 체육대회 주관기수 대륜 69(고45)회 -

24. 10. 13. 오전 9시
대륜고등학교 대운동장